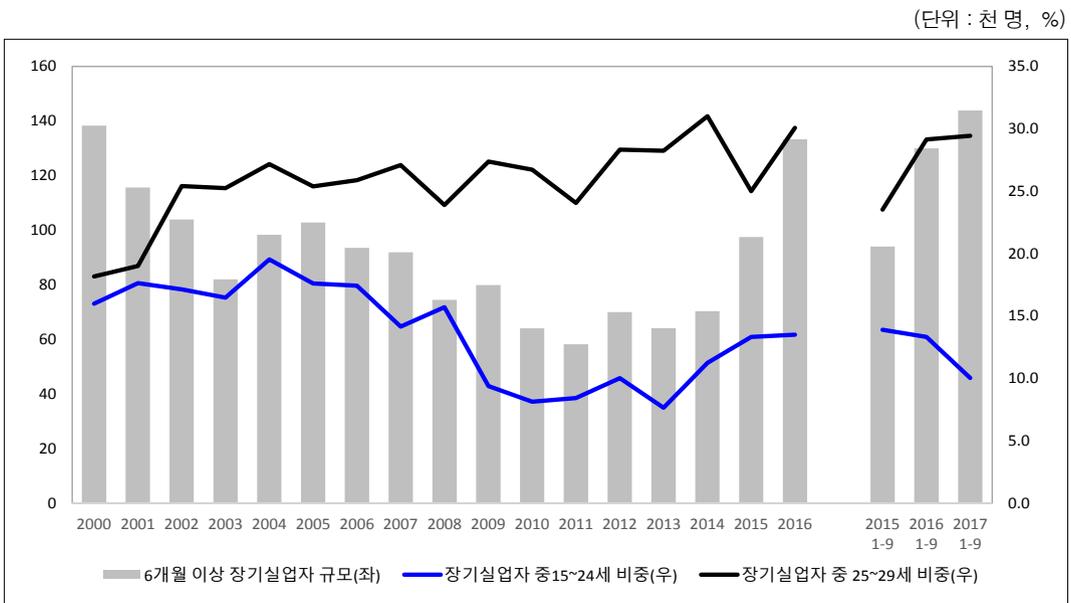


# OECD 회원국의 장기실업자 비중 비교

- 2017년(1~9월) 평균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44천 명(전년동평균대비 14천 명 증가)이며, 이는 전체실업자 1,072천 명의 13.4%임.
- 장기실업자의 10명 중 약 4명이 15~29세 청년층이며, 이들 청년층이 2004년에는 장기실업자의 46.7%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저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(2016년 기준 43.6%).
- 특히 장기실업자 중 25~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세 단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음(2016년 기준 30.1%).

[그림 1]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규모와 장기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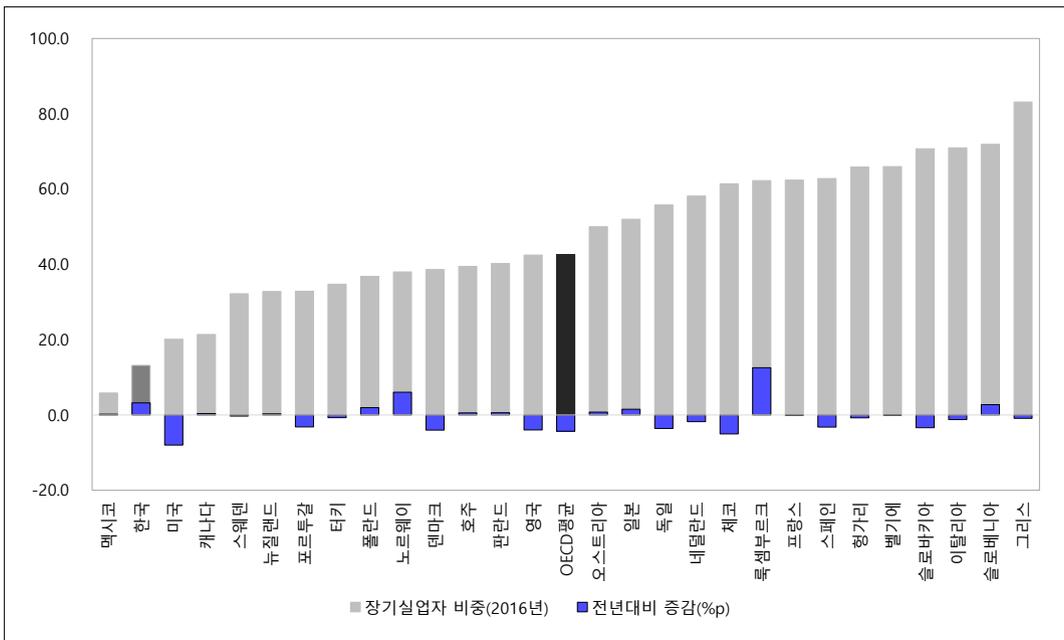


주 :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정의함.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연도.

- OECD 회원국 평균 장기실업자 비중(2016년 기준)은 42.6%로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13.2%(3.2%p ↑)로 전년대비 증가함.
  - 한국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지만,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늘어난 국가로 룩셈부르크(12.6%p), 노르웨이(6.1%p)와 함께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. 이에 반해 미국(-8.0%p), 체코(-5.0%p) 등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실업자 비중이 감소하여 OECD 회원국은 평균 4.3%p 감소함.

[그림 2] OECD 회원국의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중 및 전년대비 증감(2016년)

(단위 :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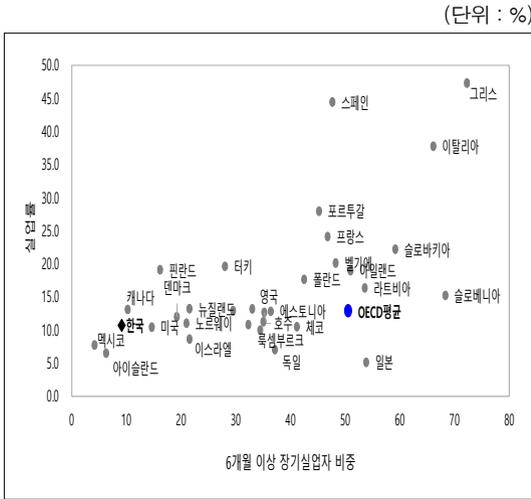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.

- OECD 회원국 15~24세 청년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평균 29.5%이며 이들 연령층의 실업률은 12.9%로 전년대비 모두 하락한 반면, 한국에서 이들 연령층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9.1%이며 실업률은 10.7%로 나타남(2016년 기준).
  - 한국 15~24세 청년층의 장기실업자 비중과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전년대비 각각 2.4%p, 0.2%p 상승함.
  - 한국에서 15~24세 청년층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은 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들 연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임.
  - 특히 20~29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87천 명(8.3%)이었으며, 구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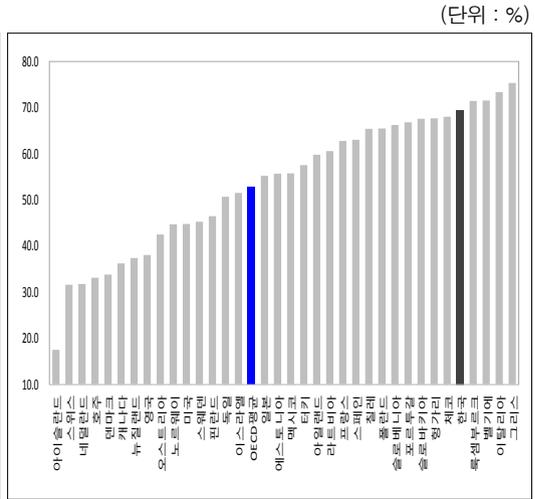
단념자 전체의 41.9%로 증가하고 있음.1)

[그림 3] OECD 회원국의 15~24세 장기실업자 비중과 실업률(2016년)



자료 : OECD.

[그림 4] 15~24세 비경제활동인구 비중(2016년)



(김복순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

1)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,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.